

## 201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 모의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

[논술고사 시간 : 2시간]

|      |      |      |    |
|------|------|------|----|
| 모집단위 | 학부·과 | 수험번호 | 성명 |
|------|------|------|----|

### 【 수험생 유의사항 】

1. 답안 작성 시 제목은 달지 말 것.
2. 수험번호, 성명 등 자신의 신상과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 드러낼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함.
3. 답안 작성 시 필기구는 반드시 흑색펜을 사용할 것(청색/적색펜 및 연필은 사용 불가).
4. 문제지와 답안지의 문제번호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불일치 시 0점 처리).
5. 답안의 글자 수는 띄어쓰기를 포함함.
6. 답안 수정은 원고지 교정부호를 사용하여야 함(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음).
7. 각 문항의 규정된 자수에서 200자를 초과하거나 200자 이상 부족할 시 감점 처리함.



## □ 제 시 문 □

[가] 우리의 정체는 이웃 나라들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을 모방하기보다 남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이익을 위해 나라가 통치되기에 우리의 정체를 민주정치라고 부릅니다. 시민들 사이의 사적인 분쟁을 해결할 때는 만인이 평등합니다. 그러나 주요 공직의 취임에는 개인의 탁월성이 우선시되며, 추천이 아니라 개인적인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가난이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조국을 위해 좋은 일을 할 능력이 있다면 가난 때문에 공직에서 배제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정치 생활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데 일상생활에서도 그 점은 동일합니다. 사생활에서 우리는 자유롭고 참을성이 많지만 공무에서는 사회의 질서를 지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경외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때그때 당국자들과 제도, 특히 억압받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제도를 잘 따를 뿐 아니라, 그것을 어기는 것을 치욕으로 간주하는 불문율에 순순히 복종하기에 하는 말입니다.

내가 우리나라의 성격에 관해 이처럼 자세하게 말한 까닭은, 여기 이분들에 대한 내 찬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우리나라를 찬양했지만, 우리나라를 빛낸 것은 여기 이분들과 그리고 이 같은 분들의 용기와 무공입니다. 이분들처럼 찬사와 공적이 균형을 이루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맞이한 것과 같은 최후는 이분들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아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중에는 흠결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조국을 지키기 위한 전쟁에서 이분들이 보여준 용기입니다. 이분들은 사생활에서 끼친 해악보다 더 많은 선행을 공동체를 위하여 베풀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분들은 이 나라에 어울리는 분들이 되었습니다. 뒤에 남은 우리는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지만, 그러면서도 적들에게 이분들 못지않은 불굴의 용기를 보여야 합니다. 그 이익은 이론적으로 따질 일이 아닙니다. 나도 우리가 적을 물리침으로써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여러분에게 장광설을 늘어놓을 수 있으며, 여러분도 나 못지않게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나라의 힘을 실제로 보고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며, 우리나라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모험심이 강하고, 자신의 의무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의무를 다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전투에서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다 실패할 것이라 생각될 때에도 조국을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함으로써 자신들의 용기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마치고 그 대가로 불멸의 명성을 얻었고 가장 영광스러운 무덤에 묻혔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마땅히 이분들을 본받아, 행복은 자유에 있고 자유는 용기에 있음을 명심하고 전쟁의 위험 앞에서 너무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나]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부터 줄기차게 우리말 다듬기 운동을 펼쳐 왔다. 국립국어원이 1991년 개원한 이래 공식적으로 다듬어서 내놓은 말만 해도 2,200여개를 훌쩍 넘어선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것이 일반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도 극히 낮았다. 이는 무엇보다 주로 전문어를 우리말로 다듬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주도 하에 관련 전문가들이 ‘다듬을 말’을 선정하고 ‘다듬은 말’을 마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우리말 다듬기가 이루어지다 보니 전방위적인 ‘다듬을 말’ 선정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일반 국민의 언어 의식과 합치되는 ‘다듬은 말’도 마련하지 못했다. 그리고 피드백 없이 다량으로 마련하여 일방적으로 보급되는 다듬은 말은 일반인의 언어 의식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경직된 것일 수밖에 없었다. 즉, 우리말 어법, 의미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우리말 다듬기에서는 ‘코너킥(corner kick)’의 다듬은 말로 ‘구석차기’, ‘모서리차기’ 말고 다른 말을 기대할 수 없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폐쇄적인 우리말 다듬기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립국어원은 2004년 7

월부터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를 마련하여 우리말 다듬기에 국민 개개인을 직접 참여시킴으로 하였다. 이는 우리말 다듬기의 방식을 ‘정부나 전문가 집단 주도’의 폐쇄적, 일방적인 방식에서 ‘국민 개개인 참여’의 개방적, 쌍방향적인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이렇게 국민 개개인을 직접 참여시켜서 마련한 다듬은 말은 자연스럽게 일반 국민 사이에 보급할 수 있는 효과도 부수적으로 거둘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지나치게 대중주의에 치우친 것 아니냐 하며 우려의 눈길을 보내기도 한다. 언어에 관한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인에게 우리말 다듬기를 전적으로 내맡기는 것은 앞으로 커다란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우리의 언어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말을 다듬어 쓰는 일과 같은 민감한 문제를 전문성이 부족한 개인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득(得)’보다 ‘실(失)’이 더 많은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우리말 다듬기에서 일반 국민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언어생활의 주역이 국민 개개인이라면 우리말을 다듬어 쓰는 데서 제 입맛에 맞는 ‘다듬은 말’을 결정할 권리도 그들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시각일 것이다. 제 입맛에 맞지도 않는 ‘다듬은 말’을 억지로 쓰도록 하는 건 지나친 강권일 수 있다.

우리말 다듬기란 궁극적으로 언어 의식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 즉, 우리말 다듬기는 우리말을 경시하고 외래어, 외국어를 중시하는 일반 국민의 언어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도 지금까지의 타율적인 방식보다는 일반 국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자율적인 방식이 훨씬 바람직하다. 그런데 언어 의식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우리말 다듬기에서는 단기간의 조그만 성과보다는 장기간의 커다란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다 함께 참여하여 꾸준히 노력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다] 우리 고향에서는 양고기를 많이 먹지 않는다. 시내를 통틀어 하루에 죽어 나가는 염소는 단지 몇 마리에 불과하다. 북경(北京)은 그야말로 사람의 바다여서 사정이 판연히 다르다. 양고기점만 해도 도처에 널려 있다. 눈처럼 하얀 양떼들이 흔히 거리를 메우곤 한다. 이것들은 모두 호양(胡羊)이다. 우리 고향에서 면양(綿羊)이라 부르는 것들이다. 염소는 아주 드물다. 북경에서는 염소가 펍 귀하다고 들었다. 염소는 호양보다 총명하여 양떼를 이끌 수 있고, 잘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까닭에 목축가들이 호양의 길잡이로만 쓸 뿐 잡지는 않는다고 한다.

이런 염소를, 나는 딱 한 번 본 적이 있다. 그는 분명 양떼들 앞에서 걷고 있었고 목에 자그마한 방울을 달고 있었다. 지식계급의 휘장으로서.

대개는 양치기가 이끌고 갔다. 호양들은 길게 꼬리를 이루고 서로 밀치면서 물 흐르듯 밀려갔다. 한없이 유순한 눈매로 양치기를 따라 총총히 그들의 앞길을 향해 달려갔다. 나는 이런 착실하고 바쁜 모습을 보며, 양들에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었다.

“어디로 가는 거니?”

인간의 무리 중에도 이런 염소가 있다. 그들은 대중을 이끌고 침착하게 걸어간다. 그들이 가야할 곳까지. 위안스카이\*도 이것을 알긴 했으나 유감스럽게도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지 못했다. 아마 그가 무식한 탓으로 그 오묘한 이치를 사용하지 못했으리라.

그 뒤의 군인들은 더욱 아둔하여, 자신들이 손수 닳치는 대로 때리고 죽일 줄밖에 몰랐다. 어지러운 통곡 소리가 귓가에 흘러넘쳤다. 그 결과 백성들을 학대하고, 학문을 경시하였으며 교육을 황폐화시켰다는 오명을 얻었다. 그러나 ‘한 번 일을 겪고 나면 그만큼 지혜로워진다’고, 20세기가 이미 4분의 1이 지난 지금 목에 작은 방울을 단, 총명한 사람들은 언젠가는 분명 운이 트일 날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표면상으로 작은 좌절을 면할 길이 없다 해도 말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 특히 청년들은 모두 규범을 깎듯이 지키며, 날뛰지 않고 고분고분 ‘바른 길’을 향해

일심 전진할 것이다.

“어디로 가는 거니?”라고 묻는 사람이 없기만 하다면…….

군자님네들은 이렇게 말하리라.

“양은 어쨌든 양이다. 길게 줄을 지어 순종하여 견지 않고 무슨 다른 방도가 있겠는가. 그대는 돼지를 보지 못했는가? 늘어 빼고, 도망하고, 껍뻍거리고, 날뛰다가도 끝내는 가야할 곳으로 끌려가며, 그러한 폭동은 공연히 힘만 뺏 뿐이지 않던가?”

이 말은 이런 뜻이다. 천하를 태평하게 하고 피차간에 힘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설사 죽을지언정 양과 같아야 한다는 것. 이 말은 지당하고 탄복할 만하다. 그러나 그대는 멧돼지를 보지 못하였는가? 멧돼지는 이빨 두 개만을 가지고도 노련한 사냥꾼도 물러서게 한다. 이런 단단한 이는 돼지가 우리를 뛰쳐나와 야산에 들어가기만 하면 금세 돌아나기 마련이다.

쇼펜하우어는 일찍이 신사를 고슴도치에 비유했었다. (중략) 공자는 ‘예절은 낮은 일반 백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백성들이 고슴도치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고슴도치가 서민들을 멧대로 찌르면서 온기를 얻고 있는 셈이다. 백성들이 상처를 입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는, 그대만이 가시가 없어 그들로 하여금 적당한 거리를 지키도록 하지 못한 탓이다.

\*위안스카이(袁世凱): 중국 근대 정치가. 중화민국 성립 후, 왕정복고를 통한 황제등극을 노렸다.

[라]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전면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지구환경의 악화는 동식물과 더불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 수위에 올라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오늘의 생태 위기의 원인을 많은 사람들은 인간중심주의에서 찾는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중심주의는 오직 인간에게만 윤리적 원리가 적용되며, 인간의 필요와 이해관계가 최상의 가치와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는 관점이다. 또한 인간중심주의는 인간과 인간적 특성에만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또 인류의 복지를 위해 개발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중심주의의 문제점은 인간 이외의 존재와 자연을, 인간을 위한 도구적 가치로만 여긴다는 점이다. 또한 인간 이외의 자연적 존재에게 도덕적 권리가 결여되어 있다고 해서 그들에 대한 의무를 인간이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점이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중심주의에 반대하는 “심층생태론(deep ecology)”은 실리주의적 관점에서만 자연을 보거나 혹은 생태계에 대한 근시안적인 전망을 하는 피상적인 접근을 피하려는 입장이다. 심층생태론자들은 피상적 생태 운동에서 제기되지 않은 질문 범주 즉, “왜, 그리고 어떻게”라는 질문을 제기하면서 서구 사회의 현 세계관 즉 지배적 패러다임을 그 토대에서부터 비판하며, 이것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이 입장에 따르면 인간은 생태계 시스템 안에서 특별히 우월한 위치가 아니라 생태계 안의 기타 종들과 똑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심층생태론은 자신을 극복하고 생태계 전체와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간과 자연을 철저히 상호 결속적인 관계로 인식한다. 그리고 자기를 넓히도록 실현하는 과정은 개인으로서의 인간됨을 넘어서서 인간 이외의 자연 세계까지 포함하는 동일화인데 이것을 ‘큰 자기 실현’이라고 부른다. 이는 개인으로서의 자신을 넓혀 자연과 생태계 전체와 일치시키는 과정으로서, 지배적 세계관이 초래한 소외 현상과는 대립된다. 지배적 세계관에서는 인간이 인간을 지배함으로써 인간 소외를 낳았고 인간이 자연을 지배함으로써 인간의 자연 소외를 낳았다. 반면 심층생태론에서는 타인을 경쟁자로 인식하는, 속 좁은 자기 자신에만 초점을 맞추는 태도를 극복하고, 모든 인간과 기쁨 및 슬픔을 함께하면서 자기실현의 확장을 꾀하며 더 나아가 자연 세계의 모든 존재와 함께하는 동일화를 통해 개인을 넘어 ‘큰 자기’를 실현할 것을 추구한다.

## □ 문 항 □

**【문항 1】**

제시문 [가]의 주장을 250자 내외로 요약한 뒤, 주된 견해나 관점이 [가]와 다른 제시문을 [나]~[라]에서 모두 찾아 각각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시오. (600자 내외, 배점 30점)

**【문항 2】**

우리나라의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에 대해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 하면 저소득층의 소비가 촉진돼 내수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경영계에서는 최저 임금이 상승할 경우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이 줄어 경제가 악화될 것”이라며 이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사례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한 가지 시사점을 던져 준다. 1992년 4월 1일에 미국 동부에 위치한 뉴저지 주는 최저임금을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시간당 5.05달러로 인상하였는데 바로 이웃하고 있는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연방정부에서 정한 4.25달러를 유지하였다.

다음 표는 뉴저지 주의 최저임금 인상을 전후하여 뉴저지 주와 펜실베이니아 주의 경계 주변에 있는 패스트푸드점들의 평균 고용인원을 보여주고 있다. 이 표를 바탕으로 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효과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400자 내외, 20점)

<표> 뉴저지 주의 최저임금 인상 전후 패스트푸드점들의 평균 고용인원

|                      | 뉴저지 주 | 펜실베이니아 주 |
|----------------------|-------|----------|
| 뉴저지 주가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이전 | 20.4  | 23.3     |
| 뉴저지 주가 최저임금을 인상한 이후  | 21.0  | 21.2     |

**【문항 3】**

<보기>의 주장에 찬성하는지 혹은 반대하는지 어느 한 입장을 정한 뒤, [가]~[라]의 모든 제시문을 활용하 되 주된 견해나 관점이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의 논거는 지지하고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의 논거는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시오. (1,000자 내외, 배점 50점)

<보기>

법이 당신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는 하수인이 되라고 요구한 다면, 분명히 말하는데, 그 법을 어겨라. 국가라는 기계가 그 법을 윤회유 삼아 매끄럽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생명을 다하여 그 기계를 멈춰 세우라.